

“텃밭표심 잡아라”...민주 대선주자 줄이은 광주행

경선일정 논란·야권 지지율 상승
위기감 속 호남민심 다지기 분주

박용진 광주시의회서 기자회견
김두관 25일 광주서 출판기념회
정세균 27일 지지 포럼 발대식
이낙연 30일 신복지 포럼 격려
추미애·이광재도 조만간 찾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일정 논란 속에도 당 내 대권 주자들은 앞다퉀 광주를 방문해 텃밭 민심 잡기에 나섰다.

대선에서 호남 민심의 영향이 큰 데다, 권리당원 숫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호남이 차지하는 표심이 크다는 점에서 대권 주자들의 광주행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당 지도부를 비롯해 대권 주자들도 위기감 속에서 호남 민심 다지기에 열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권 대선주자 3위권까지 진입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날 광주를 방문했다. 여권 내 대선 주자 중 가장 먼저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에 이어, 오후에는 광주를 방문하는 등 광복행보를 보였다. 박 의원은 '재벌과 비리 유착원 저격수'로 주가를 올렸으며, 최근 국민의힘의 이준석 돌풍의 여파로 '세대교체' 바람까지 타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회견을 갖고 당내 경선 일정 논란과 관련, "경선 일정 지지

부진, 계파 싸움, 짜증 유발 정치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 경선 일정 연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유불리를 떠나면 당장 이익을 얻지 못해도 민심은 얻는다. 당장 유불리에 묶여 민심이 실종되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오는 7월1일 대선 출마선언이 예정된 김두관 의원이 25일 광주에서 '꽃길은 없었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광주에서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과 가치를 광주 시민과 민주당원에게 적극 알리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자서전에 김두관 의원의 정치 도전의 기록이 상세히 담겨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오는 27일 광주에서 지지 세력 규합에 나선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지지모임 '균형사다리' 포럼 광주전남본부발대식에 참석한다. '균형사다리'는 가난했던 어린시절을 극복하고 6선 정치인, 국회의장,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정 전 총리의 '사다리 정치'를 상징한다. 정 전 총리가 국민을 위해 만들 미래의 사다리를 통해 담대한 회복의 시대, 강한 대한민국의 시대로 함께 오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강한 대한민국, 호남의 선택 정세균' 캐치프레이즈로 호남 공략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오는 30일 광주를 방문한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방문에서 지지모임인 신복지 포럼 관계자를 격려하고 여러 단체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이광재 의원이 조만간 광주를 비롯한 호남 방문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오는 29일 대권도전을 선언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광주 방문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걸어갈 길 말씀드리겠다”...윤석열 6월29일 대권도전 선언

국민의힘 입당 입장 밝힐 가능성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 출마 선언 시각은 오후 1시, 장소는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매현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다.

윤 전 총장은 24일 대변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정치 참여를 공식화

하고, 대선출마 의사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지 약 4개월 만이다. 지난 9일 퇴임 후 첫 공개 행보로 남산예장공원에 문을 연 우당 이회영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 뒤로는 20일 만이다. 당시 개관식에서 윤 전 총장은 기자들에게 "국민 여러분의 기대 내지는 열려, 이런 걸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다"며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묻자 그는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다"고 답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이 입당 여부에 대해 '걸어가는 길을 보면 알 것'이라고 언급했던 만큼, 이날 발표를 예고한 자신의 '걸어갈 길'에는 입당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윤 전 총장은 또 대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자신이 강조해 온 공정과 상식, 그리고 애국과 헌신 등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첫 공개 행보 장소가 항일 투쟁에 앞장섰던 우당 선생의 기념관이었고, 이번에 고른 장소도 독립투사인 매현 선생의 기념관이라는 점에서도. /연합뉴스

이재명 27%·윤석열 20%·이낙연 7%

4개기관 대선 적합도 조사

리얼미터 조사선 윤석열 32% 1위

차기 대권 지지율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위 밖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우위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1~23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에게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를 묻은 결과, 이 지사는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27%로 집계됐다. 윤 전 총장은 20%로 4%포인트 하락했다. 이밖에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7%,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3%, 정세균 전 국무총리 2%,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2% 등 순이었다. 이번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NBS)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윤 전 총

장이 여야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오차범위 밖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야권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단숨에 6위에 올랐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22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2014명을 대상으로 대선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32.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0.3%포인트 떨어진 22.8%를 기록하며 2위를 유지했다. 3위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8.4%로, 홍준표 의원이 4.1%로 4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3.9%로 5위를 각각 나타냈다. 대선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재형 감사원장이 3.6%를 기록했다.

그밖에 오세훈 서울시장(3.2%), 정세균 전 국무총리·유승민 전 의원(3.0%),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2.6%)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검증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민주당, ‘윤석열 X파일’ 공세

여권, “끝없는 검증” 선전포고
“수류탄 쏘다가 놀라 도망치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X파일' 논란을 고리로 검증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이 각종 신상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신동근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야권이) 윤석열 X파일을 근거없이 여권에서 만들었

느니 하며 물타기를 하지만, 내란이 수습될 리 없다"며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청문회로 검증됐다고 하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해묵은 검증은 퇴임 후 특검에서 일단락됐다"며 "정치인에 대한 검증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X파일'을 두고 "자폭이다. 야당 스스로 지뢰를 밟고 폭탄을 터트린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국민과 언론이 '검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던 참이었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을 향해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은 가벼울 수 없다. 이를 정치공격으로 치부하지 말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X파일을 최초 언급한 보수진영 정치평론가 장성철씨가 "X파일을 파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셀프 꼬리 자르기인가"라며 "내무반에 수류탄을 꺼내겠다"가, 폭발음이 커져 도망치며 '저쪽이요'라고 한다"고 비교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